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해야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서 성적지향 문구, 위법 소지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 중에서 ‘성적지향’은 4차례에 걸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판결과는 정면 배치(背馳)되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운동도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9월 8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이병대 부소장의 사회로 발제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중, ‘성적지향’ 이 법과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이라는 한 문구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며,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암시·종교·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하루빨리 삭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권결정인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는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국제규약 확대해석에서 나온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권고는 주관국가로서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이 없고,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하부기관의 권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적지향이 성적지향 성적취향 성적욕망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서 “특히 헌법에 금지되는 동성혼 근친혼 중혼도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기능은 기본권 보호기관인 법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그 존재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재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로하스)는 조영길 변호사의 저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 분리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일으킨 모체 역할이 ‘성적지향’ 문구임을 일깨우는 바이블 같은 책으로서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읽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2조 3호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 개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지연 대표(차세대학부모연합)는 ‘성적지향’ 문구 하나 때문에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량한 교육자와 의사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차세대 주인공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 운동에 힘을

을 모으고 강변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부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성적 판타지를 즐기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어쩌면 일인지 동성애자 군인을 약자로 둔갑시켜 보호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또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군인들의 동성 간 성행위가 버젓이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데도 국방부는 이를 군인들의 사생활로 보며, 인권문제로 치부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중의 ‘성적지향’ 문구 때문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국방부 훈령 1932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010-4117-0691)

포토뉴스



목사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금)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 목사고시에 응시한 목사고시생들의 지원서류를 검토하며 부적격자 또는 서류 미비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목사고시적임자의 선출과 목사고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2017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9월 22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열렸다.



“이러한 믿음”



조용목 목사

“...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 8:5~10)

전거나 공기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작용으로 인한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을 역시 그러합니다. 전거나 공기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듯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그 성격과 분량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분류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인간관계의 믿음이라든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또한 경험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공기가 혼탁하거나 희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공기의 존재와 가치를 절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믿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병적인 의심, 불안, 공황 증세가 생기게 되면 비로소 믿음의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건전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믿는 대상과 근거가 완전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약속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령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강한 신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믿음에도 크기와 분량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자’라고 책망 받은 이유를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용할 것에 대하여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실 상황에 더 비중을 두므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반신반의 때문입니다. 결핍의 분례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은 생각지 않고 수중에 당장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요구부동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를 가리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15:21~28)

셋째, 탁월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탁월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마 8:5~10)

여러분은 모두 일반적인 믿음 위에 신령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과 탁월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장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성명발표

－성명서 전문－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발사에 매달리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버리는 7천만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족거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고 종국에는 경제 파탄에 이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행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위기 앞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남남갈등이 벌어지는 현실에 박수칠 사람들이 누구인지, 연일 쏘아대는 미사일과 핵무기가 누구를 향한 대량살상 무기인지 우리는 똑바로 인식하고 분별해야 한다.

정부는 그 어떤 부단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변에야말로 반드시 북핵문제를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로써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무력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하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제9회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잔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천, 서울역 등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역, 주안역, 부평역 등지에서 홀로 머르신과 노숙인,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9월 13일~1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천 계양구, 주안역, 부평역, 서울역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9회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를 열어 이웃 사랑의 불씨를 아어 나갔다.

이날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에는 추석을 앞두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으로 쓸쓸함을 달래 드리는 한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다정다감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역. 그러나 이 맘 때쯤이면 더욱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소외계층에게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한 끼의 식



사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명절이라 봉사자의 부재로 부족한 손길에 바쁘고 힘들겠지만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홀로 지낼 명절을 따스함으로 채워주는 사람

의 쌀나눔잔치의 무료급식에 감사를 표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홀로는 땀만 흘리는 나눔의 기쁨과 보람이 찾아온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 1600-4022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감리교 산하 평신도단체, NCKK 탈퇴운동 전개

NCKK의 종북좌파행태를 고발한다는 보고서 만들어

9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단체협의회장 최광혁 장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정교회전국연합회(회장 최광혁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최병돈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김명숙 장로) 등 세 단체가 지난 주(NCKK의 종북좌파 행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보고서로 채택하고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대를 상대로 NCKK 탈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혁 장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 단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소속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와 함께 지난 2016년 6월 24일

“NCKK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4월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한반도평화조약안’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력 반대하여 이 조약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8월까지 조약안을 폐기되지 않으면 통합측과 감리교단의 총회 총대를 상대로 NCKK 탈퇴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NCKK가 8월말까지 하등 반응이 없어 먼저 감리교의 세 단체가 탈퇴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광혁 장로는 “그동안 NCKK의 종북좌파적 행태에 대해 조사하여 NCKK의 종북

좌파행태를 고발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NCKK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깊이 종북좌파인 단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도 NCKK와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통합측의 세 평신도 단체도 탈퇴서명운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광혁 장로는 “마침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기감, 예장합동측이 하나의 통합한 연대기구를 만들 예정인 만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더 이상 NCKK와 같은 종북좌파단체를 뒷받침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새로운 통합기구 하에서만 활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 최광혁장로 010-3710-0844

제20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열려

기증인 및 유가족, 이식인 등 함께 참석해 축하



제1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9월 9일(금) 제20회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창계전 광동교 하부공간에서 생명을 살린 기증인들의 얼굴을 담은 초상화 전시회를 진행했다.

‘Never Ending Stor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번째 장기기증의 날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실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의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눈 김유나 양을 비롯한 12명의 뇌사 장기기증인 초상화와 국내 최초 순수 신장기증인 박진탁 목사를 비롯한 8명의 생존자 신장, 간 기증인의 초상화가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가

특별한 점은 일반적인 초상화가 아닌 그동안 국민들이 기증인에게 보내준 감사와 응원의 글로 완성된 캘리그래피 초상화가 전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지난 8월 16일(화)부터 이산 씨, 이상현 씨 등 유명 캘리그래피스트 20명이 제능기부로 초상화 제작에 참여했다.

9월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은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와 분부 관계자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장기기증인들의 초상화가 전시된 생명 나눔의 벽 제작식과 함께 국민들이 보낸 감사의 글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회를 맞이한 장기기증의 날 기념 전시

회 현장에는 생존자 장기기증인,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이식인 등이 참석해 ‘Never Ending Story’라는 주제에 맞게 장기기증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전시회 현장에는 국내 최초로 부부가 모두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권재만(84세)·김교순(79세) 부부, 남편은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아내는 신장을 기증한 김근목(67세)·이정희(65세) 부부, 국내에서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중 타인을 위해 신장을 기증한 김충호 씨(47세), 타인을 위해 신장과 간을 모두 기증한 30대 남성 조사운 씨(33세)가 참석했다.

또한 9명의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들과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자녀나 배우자를 떠나보내며 장기기증을 결정한 유가족들이 참석해 가족들의 초상화 감상과 함께 네티즌들이 보낸 감사의 글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생명을 나눈 장기기증인을 기억하고, 배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열악한 국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사)기지협 ‘제35차 세계평화의 날’ 기도회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명자로 거듭나야 한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9월 12일 ‘제35차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서울 불광동 팀비전센터에 모여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 매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기지협은 이날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수호하는 근간인 ‘평화’의 존엄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명자로서 새롭게 거듭나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원종본 목사(피어선 증경총회장)가 기도한 후 김해철 목사(우터대 전 총장)가 ‘한국교회, 화평케하는자로 거듭나리’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한반도의 분단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북한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대한 국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인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철통같은 대비를 통해 우리 나



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그러야만 북한이 핵 도발을 비롯한 어떠한 반 평화적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슈바이처 박사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진정한 평화가 이뤄진다고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부 특별기도시간에는 최병두 목사(동

합 증경총회장)가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조영민 목사(기지협 고등)가 ‘국론통일과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조석규 목사(기지협 삼임부회장)가 ‘북한의 핵도발 저지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유경선 장로(기지협 감사)가 ‘한국교회 개혁과 성장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지협은 특별 호소문을 통해 IS 테러, 북한 핵개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등의 반 평화적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 세계가 함께 평화 수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기총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되자”

제2회 한라산통일기도회 가져 …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목영 목사, 이하 세기총)는 9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제2회 한라산통일기도회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로 하여 제주도 한라산 및 일원에서 개최했다.

세기총은 첫날 6일(화) 첫 시작은 발로 디딜 수 있는 곳으로는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

이어 한라산 1100고지로 이동하여 제2회 한라산 통일기도회를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와 세기총 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통일열매’라는 주제로 전한 메시지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통일도 기도의 시간이 쌓여 나가야 하며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듯이 통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고 전하면서 “한국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가 꾸준히 복음으로 통일을 위한 제목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하시리라 하시니 통일의 열매를 하라하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심기도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세기총 공동회장 유영식 목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통일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법인이사 김태성 목사가, ‘통일기도회의 응답으로 이 민족에 감사케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태극 도주환 선교사가, ‘화해와 평화의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법인이사 나득환 장로가,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의 길을 하라하시’라는 제목으로 오세창 장로가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무릎을 꿇고 두손벌려 기도하였다. 기도 후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며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날 저녁 제주도 센트럴시티 호텔에서 가진 기도회에서는 제주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도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가 인사말로 시작하고 법인이사 김태성 목사의 사회와 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기도로 진행하면서 57개의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제주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기도를 하였다.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복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되게 하셨듯이 이 민족도 남북이 하나되게 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였다.

예장 대신, 백석 통합 후 첫 총회

노회 137개, 교회 7,139개, 총회 대의원 1,455명

예장 대신(총회장 장종현 목사) 정기총회가 5일 전인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개최되어 8일까지 진행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예장 대신과 백석 총회의 통합 후 첫 총회인 만큼 교계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총회 전 개회가 어렵겠다는 우려 속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통합총회 임시시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전광훈 총회장은 당시 “대신에서 87%가 통합에 합류했다. 1년간 시간을 주면 90%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관련해서 총대들이 구 대신 측 교회의 정확한 합류 교회비율과 총대 파송비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기 박태현 목사는 구 백석에서 758명, 구 대신에서 673명의 총대가 파송돼 구 백석이 88명 더 많음을 밝혔다. 한법에는 노회별로 8교회 당 1명의 총대를 파송하게 되어 있지만 교단통합 당시 총대 동수 합의에 따라 올해 구 대신 총대가 백석보다 훨씬 많은 것

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회합과 배려”를 강조했고,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도 “두 교단이 통합된 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성결대, 대학-안양시 미래발전 포럼 개최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윤동철)는 지난 9월 8일 오후 2시에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람국제회의실에서 ‘대학-안양시 미래발전 포럼’을 주관하여 개최했다.

안양시와 성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대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성대학교 총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성결대 윤동철 총장의 ‘대학-도시 상생 발전 비전 UnivCity’를 주제로

한 기초강연과 아일론 안양시장의 ‘제2의 안양부흥’을 주제로 한 안양시 미래비전 설명, 성결대 Makerspace 추진 TFT 팀장인 방준영 교수의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 산업 창조 공간·창의 COMPLEX’를 주제발표로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성결대는 지난 5월 윤동철 총장 취임 이후 대학이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학문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발전을 추구하고자 ‘미래교육도시 SKUnivCity’를 발전 계획으로 내세워 안양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행사사업으로 이번 포럼을 제안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대학-안양시 미래발전 포럼’은 제1회 성결대를 시작으로 공동 주최인 6개 대학이 2개월에 1회씩 순서대로 주관하여 각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계수양회 삼척일대 청정 자연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9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1박 2일간 하계수양회를 갖고 강원도 삼척일대 청정 자연 휴양지를 회원들과 함께 돌아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다. 특히 핵심현 등 광기어린 행동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회원들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회원들은 5일 아침 동래역에서 모여 출발에 앞서 말세에 처져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며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회원들은 삼척으로 이동하여 함께 오찬을 나누고 용화 해양테일레이크를 타며 사랑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대게탕과 바비큐 등을 회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서로 격려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첫날 저녁 숙소인 동화 속 나라 같은 삼척 프락 펜션에서 여장을 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회원들은 환선굴과 삼척 석탄박물관, 삼척시 일대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를 감상하며 일거수일투족 함께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렸다. 회원들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서로 격려하며 목회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5일간 2016 여름 푸켓수련회

깨어 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안산시흥지방회



안산시흥지방회(회장 김영웅 목사)는 지난 9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5일간 2016 여름 푸켓수련회를 다녀왔다.

오직 목회일념으로 헌신해 오던 사역자들은 태국의 청정자연 휴양지 중의 하나인 판아만 일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요묘한 광경과 놀라

우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항상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회원들은 제임스 본

드선, 파니섬, 씨카누 체험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힐링받고 숙소에서 돌아와서는 회원 상호간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우리 나라를 비롯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월례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 다짐

안산시흥지방회



안산시흥지방회(회장 김영웅 목사)는 지난 8월 11일(목) 오전 11시 성령교회(담임 오선분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지방회장 김영웅 목사(순복음영성교회)는 '성령충만의 실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충만한 사역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해외수련회를 결의한대로 2016 여름 푸켓수련회를 점검했다.



주본향교회창립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 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9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 43번길 14에 위치한 주본향교회(담임 한현희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복했다.

이날 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사회, 김효신 목사(원양교회)의 대표기도, 정미자 목사(선교회)의 성경봉독, 목회자 사모일동의 특송,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벤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6:10-20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싸움을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삶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임명장 수여와 정립선포가 있었으며,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는 축사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영강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 분향을 행해서 나가는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삶에 복이 되는 사역을 할 것을 당부했다. 회정은 목사(민음교회)의 헌금기도 후 주본향교회 담임 한현희 전도사는 인사 및 광고에서

주님이 계신 본향으로 향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부흥케 되기를 참여 회원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였다.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이어 주본향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교제와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홍식 목사)는 지난 9월 20일(화) 예전에 있는 내포순복음교회(담임 정용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 김현덕 목사의 기도, 교단 증경회총회장 진동웅 목사의 설교와 지방회장 차홍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동웅 목사는 고전 10:3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설교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신 것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내포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오찬대접을 받은 후에 예전에 있는 예당저수지를 둘러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생명의 말씀 ■



권용덕 목사

· 총회 교육국장
· 강원서지방회장 중경회장
· 절원순복음교회 담임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자살 문제, 청년실업 문제, 청소년탈선 문제, 탈북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통 등은 희망 부재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과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1.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

다윗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는 말씀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형편을 초월해서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고 입술에 기쁨을 잃지 않고 희망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보았음이여’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든 먼저 주님께 이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갓 결혼한 부부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여쭙는 것같이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의논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늘가는 밝은 길 영생의 길입니다. 기쁨이 없던 다윗이 이 길을 바라봄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희망이 없던 다윗이 이 길을 바라봄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며 오늘날의 기쁨을 주며 내일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2.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충만을 받아 꿈이 꿈틀거리고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기와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기와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씨음을 단지 않게 하시며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잊으려지지 아니하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의 길은 돌은 햇빛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나아

상이 되었다.

이런 법조계의 비리와 부패상은, 공직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공평’, ‘정직’, ‘청렴’,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국민들과 국가가 그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한 법 적용이 아니라, 금력에 따른 판단은 법조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국가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실망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국토의 크기도 아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의 도덕적 에너지 총량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다. 도덕적 에너지의

가나니” “나의 사랑 나의 아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희망에 거하는 삶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줍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일이고 직업이요, 둘째는 사랑하는 대상이요, 셋째는 꿈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대왕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재산, 영토, 보물들을 나누어주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부하가 묻기를 “이제 대왕은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대왕은 말하기를 “나는 오직 희망을

결핍은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이 된다 는 것이다.

지도층은 우리 사회 속에서 ‘술선수범’을 일상화하고, 선동과 포퓰리즘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열등과 조롱 의식에서 사용하는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헬기장기식’의 선동도 자주 사용해서 안 된다. 또 지도층이 ‘갑질’로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공적 직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도, 결단코 간담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부정부패는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기하면, ‘협치’를 주장하던 20대 국회도 결국은 과거의 정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며, 일부 재벌가와 일부 종교인들의 일탈도 국민들에게 실망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가지고 살겠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과 행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확신하고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는 못배우고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빨리 달리는 것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희망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자동차를 만들고 생산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디트로이트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요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영생의 길을 보면서 항상 주님을 만나 뵈옵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희망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희망에 거하는 삶을 배우게 됨으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세계만방에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마치 ‘가면무도회’를 하는 것 같다. 본래의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가장(假裝)했지만, ‘민낯’도 그대로 드러낸 채, 부도덕의 유희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를 상당 부분 내려놓고, 의무와 책임감의 짐을 무겁게 짊어져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에 희망의 행동, 희망의 언어, 희망의 몸짓으로, 희망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를 향하여 ‘희망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 정

박조준 목사, 목회 나눈다



세계지도력개발원 원장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가 9월 22일, 10월 13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5번에 걸쳐 2학기 목회나눔 모임을 분당에 있는 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번 모임에서 박조준 목사는 목회란 무엇이며, 목회자는 왜 존중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역설할 예정이다.

기성, 영적성회 강사단 발대식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여성삼 목사)는 교단 창립 110주년 영적각성 성회 강사단 발대식을 8월 24일 오전 11시 본부 3층 예배실에서 가졌다. 김창배 준비위원장의 인도로 가진 이날 예배는 김춘규 부총회장의 기도, 권석원 중경총회장의 ‘세례, 성령, 금식’이란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조현애 교수, 국무총리 표창



한일장신대 조현애 명예교수가 교육발전예비인재공로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일장신대(총장 오덕호)는 8일 총장실에서 전수식을 갖고 조 교수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조 교수는 198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1년 6개월 동안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영어영문학 교수로 재직했다.

나사렛대 조기성, 패럴림픽 금



나사렛대 조기성 학생(특수체육학과 1년, 뇌병변장애 2급)이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패럴림픽 역사상 자유형 첫 금메달이기도 해 의미가 크다. 조 군은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피파크에 위치한 올림픽 아쿠아스틱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S4(장애 4등급) 자유형 100m 경주에서 1분23초36을 기록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6.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6. 9. 8(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6. 9. 22(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6. 8. 31(수)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목회자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라

주님을 믿는 신앙을 추상적 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구체적 현실에 큰 가치를 두고 시장과 이익에만
매달리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 1902년 7월 28일~1994년 9월 17일)는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지옥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위키백과 =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the attempt to make heaven on earth invariably produces hell)]”고 강조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정의나 평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내세우고 이를 종교적 권위나 이념적 정당성으로 무장해 지상천국을 약속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은 인간의 정의성과 자율성을 압살하는 지상지옥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회나 개인일 수록 딛고 있는 현실의 삶은 파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천년 전의 로마사회는 하늘의 권위를 빌린 추상적 이념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땅 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대 로마에서 초월적인 종교적 가치를 비현실적인 도그마가 되어 인간성을 속박하지 않았고,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종교전쟁은 없었다.

최고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황제의 책무도 정의나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량과 안전이라는 인간적 구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

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는 있었으나 종교적 조직은 없었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은 있었으나 신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제는 없었다. 신의 개념도 인간에게 지시를 내리는 절대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수호신의 역할이었다.

제관 역시 시민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선출했기에 독립된 사제급이 형성되지도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서는 제정분리가 공허한 수호에 그치지 않고 체제 안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종교적 유연성은 문화적 개방성과 아우러져 로마가 보편제국으로서 통치력을 기질 수 있게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기능했다.(출처 :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이는 “경정사회에서 생존공간을 찾는 기업조직의 중심에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데 그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유럽사를 논할 때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교황제로 이어 지고 현대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굴곡의 역사가 있다. 물론 로마가 오늘날 까지 존립 할 수 있는 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로마의 종교성은 수많은 개혁자들이 등장 할 수밖에 없는 굴절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지

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는 원인의 한 제공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들 역시 비현실적 개념에 매몰된 정치세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문, 학살 등 그들의 만행이야 말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지향했던 방식에 의한 성공의 가치를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물론 개신교인들 중에도 인본주의 가치관에 의한 성공관을 주장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바 그들 역시 그다지 다르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칼 포퍼는 나치의 잔혹한 인종차별 행위가 미친 영향을 두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구체적 현실에 큰 가치를 두고 시장과 이익에만 매달리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총을 감람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14)



여수수아칼럼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경험과 경험 너머

(욥 42:5)



2014년에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파트릭 모디아노(Patrick Modiano, 프랑스 작가, 1945-)의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퇴역탐정이 자신의 소멸된 자아를 추적해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는 전쟁(세계 2차 대전)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한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까지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амnesia)이라는 독특한 설정 때문에 본 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일들은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기’는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이름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 그의 이름은 기 롤랑(Guy Roland)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기억을 잃어버린 직후에 만난 흥신소 사장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과정 중에- 자신이 ‘프레디(Freddy)’라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신은 프레디가 아닌 페드로(Pedro)였음을 알게 됩니다. (본 소설은 그것마저 100%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는 자신의 국적을 알아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프랑스인으로 알고 있다가, 차츰 남미인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인으로, 결국에는 그리스인으로 국적을 수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대상까지도 수정해가 했습니다. 자신이 프레디인줄로 알고 있을 때는 자신이 사랑한 연인을 ‘게이 오틀로프’로 생각했으나 자신이 페드로라고 깨닫게 된 뒤에는 ‘드리즈’로 수정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얻게 된 가지 중요한 통찰은 바로 ‘나를 나로 만드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나를 찾는 과정 중에 전혀 다른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설정(reset)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 롤랑이라는 이름이 바뀌니 사랑을 감정을 느끼는 대상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지각도, 그로 인해 내 삶의 향방도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경험들과 나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험들을 하기 전의 나와 경험을 한 뒤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에 빠졌던 경험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경험이란, 큰 성취와 성공의 경험이란, 그 반대로 실패와 상실의 경험이란, 경험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 면이든 우리들의 내면과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기토 히타케가 저술한 『헤겔사전』은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현실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의식인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넘어서 고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험이란 사람의 내면을 만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다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구약의 의인 욥이 했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말은 욥 자신이 ‘경험으로 만들어져, 경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결국 경험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얻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숙한 자기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 금융기관 추석맞이 온정모아

전통시장 활성화·소외이웃 성금 전달

한국구세군시령관 김필수는 지난 9월 6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국회의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안민수 삼정화재 사장, 조용기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정재계 인사와 자선냄비 신재국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계자와 함께 서경복 상인회장과 영등포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석하였으며, 특별히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소상공인 간담회 순서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행사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0장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각 사회복지 기관들에 전달하여, 소외계층



도 지원하며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 해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털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권을 통해 모금되고, 한국구세군을 통해 전달되는 이번 기부금은 5,500만원 규모이다.

한국구세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나눔을 통해 모

아진 이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한다”며, “물가가 많이 올라, 이번 나눔이 얼마만큼이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온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더우드 학술강좌 60주년 학술강좌

이해를 넘어 공감으로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는 지난 9월 9일~11일 ‘동북아의 화목, 이해를 넘어 공감으로’라는 주제로 제 53회 언더우드 학술강좌를 개최했다.

올해 53회 언더우드 학술강좌는 작년 52회 언더우드 학술강좌에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함께하는 동북아와 기독교’의 기본주제를 이어가는 동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중·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동북아 각국의 청년들의 기독교 청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적 윤리적 사회적 비전에 대한 한·중·일 간 공감과 이해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행사인 9월 9일~ 9월 10일간 코이찌미 켄 교수(도쿄신학대학교), 정원래 목사(중국 광둥성 심천시 평화교회 담임)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한·중·일 청년들간의 1박2일 동북아캠프로 시작되었으며, 9월 11일 오후 3시 새문안교회 본당에서 임성

빈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코이찌미 켄 교수, 정원래 목사의 기초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중·일 청년들을 비롯한 새문안교회 전 교우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53회 언더우드 학술강좌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한·중·일 청년들이 추천도서·영화를 감상하고 독후감 및 비평문을 제출하여 역사적·문화적 소통을 꾀한 ‘한·중·일 독후감 공모전’의 시상식도 9월11일 본당사에 함께 진행하기도 됐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957년부터 시작된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학술강좌는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H.G.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과 봉사, 사역의 정신을 이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월 8일(월) 교단 총회장님을 비롯 중경총회장님과 지방회장님 등 회원 목사님들과 많은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교단정책위원장 교단 총회장 지도교문 회장 부회장 부회장
조용목 목사 조남영 목사 김인찬 목사 신재영 목사 김기진 목사 서경복 목사



상임총무 사무국장 서기 재무 회계
김건수 목사 최정식 목사 성기찬 목사 조은혜 목사 양은래 목사

대표교문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상임위원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죽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회장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사무국장 최장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열 목사(오성사랑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
회계 양은래 목사(창조교회)
감사 김중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원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
정환우 목사(순복음빛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음세대를 위한

CBS 성경암송대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CBS Media Group™

우리의 희망, 다음세대를 위한 CBS 성경암송대회에 도전하세요!

- 참가자격 | 개인 - 주일학교 학생 (고등부 이하)
단체 - 같은 교회 성도 12명으로 한 팀을 구성,
최소 6명은 고등부 이하 학생으로 구성, 이외 참가자는 연령제한 없음
- 참가비 | 개인 10,000원, 단체 5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212-001999-13-079 (예금주 : (재)CBS)
- 접수기간 | 10월 2일(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신청인(팀대표) 명으로 입금
- 접수방법 | CBS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 1차예선 | 2016년 10월 15일(토) CBS 본사 (암송 범위, 분량 자율, 5분 이내)
- 시상안내 | 개인 우승-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권 2매
단체 우승- 국내 성지순례 여행권 12매

CBS 성경암송캠페인에 신청하세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성경 1189장 전체를 암송하여 종교개혁일에 봉헌하려고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 | CBS 홈페이지(www.cbs.co.kr)를 참고 또는 02)2650-7931로 문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여주봉 목사 // 목사포도나무침례교회 담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산다 ①

로이드 존스 목사가 1859년에 일어난 웨일스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1959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이 책으로 엮여진 『부흥』, J.I. Packer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추천한 그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부흥 8장)

1.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2.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3.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을 맞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4.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가려져 있던 진수적인 진리, 그리고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항상 재발견되어지는 중추적인 진리 중 핵심적인 한 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꼽는다. 그는 이어서 마르틴 루터 시대뿐 아니라, 웨슬리 시대, 웨일즈 부흥, 150년 전의 북아일랜드 부흥 등 모든 부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부흥 이전의 예비 단계에서 재발견 되어진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부흥 51쪽 이하)

나는 오늘날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만 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선 처음 구원 받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신앙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해야 할 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부분이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 받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한 것입니다 (롬 3:22-26, 엡 2:8-9), 그러나 그 뿐 아닙니다. 그 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갈 2:20-21), 처음 받는 성령의 역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갈 3:2, 5:14)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도 (골 3:7-11), 순간순간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도 (갈 2:11-16)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부터 오늘날 매우 심

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이 심각하게 율법주의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혹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 혹은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인 빌립보서 3장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할례당이 정확하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빌 3:2), 참다운 성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합니다 (빌 3:3)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과 과거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열심을 언급하고 난 다음, 그것들을 육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빌 3:5-8).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의지하는 것들은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빌 3:9).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온갖 종류의 “육체”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 가에 앞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우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11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14절), ‘외식했다.’ (13절)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소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행 15:7-11).

그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앉은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배후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가치관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또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 행동은 철저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영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심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의가 그 혹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고전 3:11). 그런데 나는 그 말 속에 고린도전서 1:30과 2:2에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30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고, 고린도전서 2:2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빌립소서 3장을 보아도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삶이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 (구원)을 한 마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랑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다음호에 계속〉



2016년 가을 총회의 계절 성큼 다가와

총회의 계절 9월, 최대의 이슈는 ‘이단’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본격적인 가을 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가을 총회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혼란을 빚고 있는 이단 사면과 관련하여 총회원들의 뜻이 어릴게 모아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로교 장자교단임을 자부하는 예장 합동 총회는 부총회장 후보를 놓고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고, 일부 교단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어떤 모양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짐과 만남을 또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일은 가을이면 만나게 되는 익숙한 풍경들이 아닌가 한다.

가을총회의 첫 테이프는 예장 중앙총회(백기환 총회장)가 올해도 9월 1일 개회되어 가을총회의 출발을 알렸다.

예장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제101회 총회로 9월 28일(월)부터 30일(금)까지 서울충현교회에서 열린다. 총회장에는 현 목사부총회장인 김선규 목사(명양제일교회, 성현교회)가 전례에 따라 제101회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며,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이종직’과 ‘김용수’ 등의 문제로 지난 8월 28일 9번째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다.

예장통합총회(채영남 목사)는 9월 28일(월)부터 29일(목)까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 1:17, 례 19:2)라는 주제로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린다. 현 부총회장인 이성희 목사(서울노회, 연동교회)가 박수로 추대될 예정이며, 목사부총회장에는 정현호 목사(강서교회)와 최기학

목사(상현교회)가 각각 등록을 마쳤고, 장로부총회장에는 손학중 장로(영서교회)가 임후보했다.

예장대신(백석) 총회는 천안 백석대학교의 대강당에서 5일 개회되어 8일까지 진행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엡5:10)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제1부총회장 이종승 목사(영남노회)가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상현 목사) 제66회 총회는 9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신총회는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배광호 목사(동부산노회, 남천교회)가 목사부총회장에는 김상석 목사(남부산노회, 대양교회), 장로부총회장에는 이계열 장로(동서울노회, 서울성산교회)가 각각 총회 회장단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에 각 임원 후보도 단독 출마했다. 예장고신은 금년에도 고려학원문제 등이 주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최부옥 목사) 제10회 총회는 9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경기도 화성시 라비둘리조트에서 ‘종교개혁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제로 열린다. 총회장에는 현 목사부총회장 권오윤 목사(서울남노회, 발음교회)가, 목사부총회장에는 윤세관 목사(광주노회, 풍안계림교회), 장로부총회장에는 황일영 장로(광주남노회, 완도제일교회)가 각각 단독 후보로 임후보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9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0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는 둘째날(20일)에 진행되었다.

별난플리마켓 수익금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응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지난 9월 4일, 강남 논현동 복합문화공간 ‘엘리스 몽드’에서 ‘제3회 별난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주)제우스아트컴퍼니(대표 김지아) 주최로 이루어진 이 행사의 수익금의 일부는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별난플리마켓’은 최신 트렌드의 패션상품과 육아에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도심 속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일반 플리마켓과는 차별화된 컨셉트를 제공했다.

한편 (주)제우스아트컴퍼니는 2010년부터 홀트아동

복지회 재능기부 공연 등에 참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자선 활동을 해왔으며, 별난플리마켓은 내달 10월에도 엘리스몽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북지방회 피산순복음교회 엔학교레 전도 일군 모집

살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엔학교레 청년들과 나누었던 말씀으로 또 다른 청년들에게도 함께 훈련 하고자하는 주님의 감동이 오게 되어 개인과 열병의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사랑에 깊이 나아가길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여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며 교제 하길 원합니다.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이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육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상태와 이 세대를 위해 누가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하시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의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훌륭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이 땅에서는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이며 훈련 받을 때입니다.



- | 일시 | 2016년 1월 19일 ~ 22일(입소시간 오후2시까지)
- | 장소 | 충북지방회 피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 엔학교레 기도처 (충북 피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 | 대상 | 주님께 머물며 회개와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자 (19세 이상 청년)
- | 회비 |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 | 문의 | 010 5145 3816(엔학교레 미니스트리)



장소가 협소하므로 모집 인원을 10명으로 한정 합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확정된 분께는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한동대, 비전 2025 선포 예배

지난 9월 7일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비전(VISION) 2025’ 나눔 예배를 효암 캠퍼스에서 열었다. ‘비전(VISION) 2025’는 오는 2025년까지 한동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한동대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장순흥 총장은 이번 예배를 통해 직접 ‘비전 2025’를 발표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한동대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유했다.

장순흥 총장은 기존 슬로건인 ‘세상을 변화시키자(Why not change the world?)’를 변형없이 지켜나기면서 더 나아가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자(Change the world, with love and wisdom)’를 ‘비전 2025’의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장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동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동대의 세 가지 특성인 ▲기독교 대학 ▲정의 융합 대학 ▲글로벌 대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교육 방향으로는 영성,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 비전 및 진로교육 강화, 융합 교육 강화 등의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통일한국 프로젝트 ▲아프리카 프로젝트 ▲창업 활성

화 프로젝트 ▲스마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차세대 ICT 프로젝트 ▲차세대 자동차 및 로봇 프로젝트 등 10가지다.

장 총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한동인의 인재상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한동대가 추구하는 영성, 인성, 창의성을 갖추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5대 핵심 역량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한동대 학생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추고, 다학제간 융합을 이루고,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전 2025’의 10대 전략사업을 소개하며 그 중 한동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자유학기제’를 더욱 활발히 운영하여 더욱 유연한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 및 교원 유치,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구조 구축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동대가 목표하는 부분 중 하나인 포항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해 온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지역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다. 장 총장의 말씀이 끝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한동대와 장 총장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 같이 한동 로고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쳤다.



국제학술대회, 나사렛대에서 개최

10월 8일, 주제 강연·포스터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회장 김금희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오는 10월 8일(토) 나사렛대 패저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림책으로 하는 교육과 치유(Teaching Minds & Healing Hearts with Children’s Literat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과 유지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전래동화 심리학자인 셀던 캐시던 교수

(메시츄세츠대), 독일 유지원 베로니카 판쿠흐 원장(DSSI 유지원), 프랑스 프랑스의 레미 쿠르종 그림책 작가 등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 강연 릴레이와 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본 학술대회는 학회 홈페이지(www.childrenbook.or.kr)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10일(토) 1차 등록이 마감된다.



“기쁨과 감동, 사랑 나눈 명절이었어요”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가 한기위를 맞이해 미국과 중국, 일본, 우간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0여 개국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쁨과 감동, 사랑을 나누는 한기위 행사’를 9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1박 2일간 개최했다.

첫 날 백석대학교의 한 교직원 가정에서 진행된 ‘홈스테이’에는 백석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중국 위해 경외국어학교의 졸업생 5명이 초대돼 한국 가정집에서 한국의 정이 듬뿍 담긴 식사를 하는 등 제대로 된 한국 문화 체험을 맛 봤다.

이날 초대된 5명의 학생은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으며, 방문 가정 자녀가 지난 여름

‘천안시 중국어캠프’에 참여해 중국 학생들과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국인 학생들을 대접한 교직원 가정 A씨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막내 아들에게 중국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다”며 “중국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중국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8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전통음식(불고기, 잡채, 송편)과 각자 지역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인사법을 배우기도 했다.



‘2016 Hope ASIA’ 오사카·북경 성황리 개최

‘하나님의 지팡이 끝을 보라’를 주제로

호프월드미션(HWM, 대표 김용국)은 지난 8월 3일(수)부터 7일(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8월 11일(목)부터 15일(월)까지 중국 북경에서 ‘2016 HOPE ASIA’ 사역을 진행했다.

먼저 4박 5일간 일본관서지역(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에서 광복71주년 기념 ‘2016 Hope Japan’ 일본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30여 개 교회 목회자, 선교지도자·헌신자, 성도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선교대회는 일본정부에 있는 관서지방에서부터 일본 기독교의 부흥을 위하여 한일선교지도자, 선교사들이 주강사로 참석했다.

‘하나님의 지팡이 끝을 보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Hope Japan 일본선교대회’에는 복음화율 1%에도 못미치는 일본복음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2010년부터 일곱번째 행사로 이번에 일본 중심도시 관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선교대회의 강사로는 오사카에서 30여 년간 사역한 이병용 선교사(HWM 오사카터치미교회), 교토에서 20여년 간 사역한 유봉호 선교사(교토성북



교회), 오사카신학대학교 학장인 양동훈 선교사(오사카선교교회)와 일본선교의 모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남대현 선교사(소우지그리스도교회) 등 현지 선교사들이 강사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사카 고베 교토 시가지지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진하는 행사인 “March for Hope” 행사를 찬양하며 전도하며 땅밋기를 하는 등 시가지 행진을 각 도시에서 가졌다.

이어 중국 북경에서 ‘2016 HOPE CHINA’ 사역을

진행했다. 최근 중국정부가 공산당원들에게 종교를 갖지 말도록 했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북경을 밝은 20여 명의 단원들은 북경의 천안문, 용경협, 만리장성, 이화장 등 주요 지역과 중국인 교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학생교회 등을 방문하여 기도와 중국 선교에 대한 사랑을 듣고 중국선교의 중요성과 중국이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국교회가 큰 부담을 가져야 함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이패밀리, ‘21세기 가정회복’ 심포지움

하이패밀리 가정회복사역 최고위과정원장 김향숙은 5일 ‘가정회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종교개혁 500주년과 21세기 가정회복’을 주제로 개강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격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격정하는 시대다. 최근 교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청년사역자의 성적 타락,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들이다. 그 배후에는 가정생활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에 성적 유혹은 파괴물들이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스스로 종교개혁에 나서야 한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가정생활의 개혁이었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의 기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의 건강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가정회복을 통한 종교개혁은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움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하이패밀리 25주년에 즈음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둘의 역사를 이어주는 공동의 과제인 가정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했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본질적 과제인 가정회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한국교회의 개혁에 실제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정회복의 과거를 진단하기 위해 역사신학자인 안인섭 교수(총신대)가 발제자로 나섰다. 안교수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불링거, 칼빈의 가정생활을 조명하면서 종교개혁이 곧 가정개혁이었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했다. 가정회복사역의 현재는 김향숙 원장(행복발전소 대표)이 진단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터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신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액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0월 20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⑥ 답임목사 추천서
- ⑦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⑧ 건강진단서(HIV포함)
- ⑨ 가족관계증명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초대시

정문석 시인

오른 편으로 던지어라

- 요한복음 21장 6절 -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히느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어라.
나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 마다
오른 편을 살피 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 마다
오른 편을 살피 본다.
주께서 일러 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 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굵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생생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 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요람, 발간』
- 시집『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CTS ‘뮤직홈음악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다음세대 및 기독교 클래식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는 뮤직홈음악연구소(대표 서동범)와 5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다음세대 준비 및 기독교클래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교 사업 영역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다음세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기독교 클래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이를 위해 뮤직홈음악연구소는 CTS에 1억 원의 광고 사업기금을 전달하고 2017년 다음세대 기독교 음악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TS 김관상 사장은 “음악을 통해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뮤직홈음악연구소와 업무협약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CTS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다음세대가 부흥되고,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뮤직홈음악연구소 서동범 대표는 “접기는 마음으로 CTS의 영상선교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다. 뮤직홈음악연구소는 만 명의 회원들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도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제 백만 명의 회원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려고 한다. 이번 CT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는 10월 17일(월)부터 23일(토) 주간을 ‘CTS WEEK’로 선포하고, 매일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에게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특별한 주간을 선물한다. 세계를 교구 삼는 CTS의 복음전파 사업을 위한 말씀과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등 CTS 사업에 동참할 동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설

“종말적 재앙에 대처할 방도는 기도뿐”

절대적인 국가 위기에 처하여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북의 불안정으로 인한 핵무기 위협과 강력 지진이라는 공포가 잇달아 우리 대한민국에 밀어닥쳐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각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찌보면 핵 공격과 지진 엄습이란 종말적 재앙에 사람의 힘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길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시 115:11) 하신다.

한교연을 비롯한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9월 9일 김정은 5차 핵실험 강행에 직면하여 이를 강력 규탄하고 정부는 핵개발 선언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강구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성명이나 규탄에 더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비상한 위기 국면에 처하여 특단의 기도를 해야 하겠다.

오늘의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교회 단위 릴레이 기도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가 해소될 그날까지 각 교회마다 구국기도의 열기를 끊이지 않게 해야 하겠다. 적어도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지기라도 할 그날 까지, 매일 교회 단위로 순번을 정하여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전국 각 지역과 동네마다 교회가 자진하여 교회 단위 구국기도회를 열어 갈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이 나라의 최고 권력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다. 사느냐 죽느냐의 국면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 나라 정치권은, 전쟁 국가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내년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더 정신이 빠져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쳐오는 위기는 시시각각 위중해 지는 이때, 이 나라의 영도자가 누가 되느냐, 다윗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여로보암 같은 하나님이 내치시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체제 핵심권을 강행

하자, 온세계가 한반도의 전운 위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 대한민국이 감정은 집단의 핵 도발에 절대적 위기를 만난 현실을 직시하고, 핵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거나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실시하여 북의 도발행위를 단호히 응징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다.

한반도에 돌발적인 전쟁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 잠복하고 있는 제2, 제3의 이석기와 같은 종북·좌익 세력들은, 사회가 불안하고 동요하기를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음모를 획책하고 있을 것으로도 능히 진단 할 수 있다.

거기다 미 대통령 선거가 불과 2개월여 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후보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파괴할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 11월 미국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에는 엄청난 재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만일 미 대통령이 트럼프의 입에서 ‘주한 미군 철수’라는 한마디가 발설되는 순간, 대한민국 서울의 증권시장은 패닉(공황)상태로 즉시 돌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지난 세월, 주한 미군의 확고한 주둔과 미국의 한반도 수호의지가 불변하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국 직전의 경제력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과거 진보 정권 당시, 반미 구호가 공공연히 서울에서 외쳐질 때, 미국에서는 믿을 수 없고 은혜를 모르는 나라에 무엇 때문에 미군이 피를 흘리며 지켜주어야 하느냐하는 회의론이 강력히 대두된 일이 있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민주당 할러리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당이 재집권하여도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고 한다. 만일 ‘주한 미군 철수 검토’ 이 한마디만이라도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일대 혼돈과 위기 국면으로 곤두박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대권다툼에 벌써부터 정치책략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는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돌입을치고 있다. 이때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 구국기도를 바라보자.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 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 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교 끝에 다메섹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서론
2. 창조의 역사
3.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4. 생명에 관하여
5. 창세기 1:26~27 -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사
6. 창세기 2:7 - 흙으로 만든 사람, 아차
7. 육 · 혼 · 영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화 받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8. 결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곧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변화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202-631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거룩하라”(고후 7:1)

♡♡ 초 · 대 · 합 · 니 · 다

대지를 달구던 여름을 건너 신선한 가을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에 항상 무장해야 할 존경하는 사모님!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옮겨 주님 안에서 친목과 화합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자
‘2016년 제 6회 예하성 전국사모단합대회’에 사모님을 초대합니다.
혼신을 다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사모님!
우리들의 만남을 기대와 설렘으로 사모님 한분 한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오니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모회 임원 일동

2016 전국사모회 임원					
고문	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직전회장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김영숙 사모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회장	1부회장	2부회장	3부회장	총무	협동총무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김봉선 사모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	이은숙 사모 (정음순복음중앙교회)	박경미 사모 (순복음승리교회)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재무	감사
					
오숙희 사모 (밝은빛교회)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조정애 사모 (순복음약속교회)	김숙자 사모 (세종순복음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박정선 사모 (고흥송곡교회)

일시	2016년 10월 17일(월) ~ 19일(수) 2박 3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주제	“거룩하라” (고후 7:1)
강사	조용목 목사(교단 정책위원장) 조남영 목사(교단 총회장) 이광신 목사(청주아가페교회)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 조영란 목사(일산벨엘교회) 변원식 목사(창조교회)
관광	광명동굴, 시화방조제 전망대, 돌섬호남회집(점심식사)
후원계좌	302-8322-9191-31(농협 조정애)

※ 선물 및 행운권 추첨, 조별 장기자랑으로 푸짐한 상품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단체차량(근거리 승합차) 유류지원과 먼 거리에서 오시는 사모님들을 위하여 소정의 교통비도 지원하여 드립니다.

일 정 표

첫째날 10월 17일(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오후1시	환영합니다!	등록
14:00 - 15:30	개 회 예 배	설 교 : 조용목 목사(교단 정책위원장)
15:30 - 16:30	휴식 · 레크레이션	강 사 : 변원식 목사
16:30 - 18:30	조별구성·교제	조모임 : 조정애, 조이름짓기 등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찬양과경배 · 성령부흥회	강 사 : 이광신 목사

둘째날 10월 18일(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오후6시	개인Q.T · 세면	
08:00 - 09:00	아 침 식 사	
09:30 -	관 광 지 출 발	
10:30 - 12:00	시화방조제 전망대(대부도)	안산시화 소재
12:00 - 13:30	점 심 식 사	돌섬호남회집
14:00 -	광 명 동 굴	광명시 소재
16:00 - 17:30	성전도착 & 휴식 · * 조별장기자랑 연습	각 조장 : 조별 모임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찬양과경배 · 성령부흥회	강 사 : 조남영 목사(교단 총회장)
부흥회 후	조별장기자랑	*상품이 푸짐합니다. ^^

셋째날 10월 19일(수)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오후6시	개인Q.T · 세면	
08:00 - 09:00	아 침 식 사	
09:00 - 10:30	특 강	강사 : 정운기 목사
10:30 - 12:00	폐 회 예 배	강사 : 조영란 목사
12:00 - 13:30	점심식사 · 사역지 향하여 Go ~~~	2017년에 만나요 ~~~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